

탐진치 三毒의 허망함 몸짓 언어로 탄생

파사무용단 '붓다 이야기 첫번째-버려야 할 것들'
10월 6일 대학로 카페장에서 제작 발표회



"나라는 존재가 무겁고 어둡다. 삼독(三毒)이 온 몸에서 꿈틀거림을 알아챈다.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다. 버려야지! 찰나에 밝은 빛이 보인다. 존재의 가벼움에 안도감이 스미는 이 자리, 지극한 즐거움이 가득한 바로 그 곳? 우리가 찾아야 할 삶의 이상이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오염되지 않았는지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경건 공부와 명상 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수행자이기도 한 황미숙 예술감독은 그간 수행을 하면서 느꼈던 탐진치 삼독의 허망함을 안무로 풀어냈다. "이 작품이 현재의 '나' 그리고 '나의 삶'을 들여다보는 창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지나친 욕망의 꿈을 부풀리며, 이룸에 대해 집착하죠. 그래서 이룰 수 없는 집착에 동반하는 분노는 어리석음을 낳아요. '나'를 바라보는 내 안의 시각으로 탐진치를 무대 위에 객관화 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황 감독은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들이 일으키는 삼독의 다양한 양상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표현한다. 여기에 기타 바이올린 등의 라이브 음악을 배경으로 몸의 움직임이 즉흥적 교감을 공유한다. 또한 한 상황의 주제를 무용수들이 음악과 서로 대화하듯 주고받는 장면이 펼쳐진다. 황 감독은 "무거운 주제를 때로는 가볍게 터치하며, 에너지의 흐름을 좇아 자연세계와 일체되는 느낌을 공유하고 싶다"고 전한다. 작품은 프롤로그 '존재-집착-고해-절

연-에필로그 '극락'으로 구성된다. 프롤로그 '존재'는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는 순간 인식이 열리면 분별이 시작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다. 존재의 탄생과 삶의 고단한 욕망이 점점 자라나는 과정을 표현한다.

'Sin 1. 집착'은 욕망에 대한 집착, 끝없이 반복되는 광증, 중독, 소모적인 시간의 허망함 등 우리가 버려야 할 첫 번째 요소가 집착임을 보여준다. 'Sin 2. 고해'는 고

바이올린 등 라이브 음악 배경으로 존재부터 극락까지 옴니버스 구성 11월 4일 대학로 예술극장서 초연

통의 바다 속에서 분출되는 화의 어리석음을 표현한다. 'Sin 3. 절연'은 집착과 분노는 '나'와 '나'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며 삼독을 스스로 끊어야 아상을 버릴 수 있음을 말해준다. '에필로그-극락'은 찰나의 빛 속에 삼독을 끊어버린 '나'를 보여준다. 자연의 소리에 합일되니, 지혜의 눈이 환히 밝아지고 지극한 즐거움이 춤추는 '나'를 발견한다.



파사무용단이 탐진치 삼독을 소재로 하는 '붓다 이야기 첫번째-버려야 할 것들'을 초연한다.

이 작품은 결국 '나'를 변화시켜 해탈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누구나 발심을 하면 이 과정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황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 모습이 재했구나. 나는 현재 탐진치 중 어떤 모습에 빠져 있나 이런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현재의 나를 관찰해 스스로 힐링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바람을 전했다. 황 감독은 앞으로 불교 경전의 내용을 시리즈별로 풀어낼 계획인데 두 번째 이야기는 인드라마를 무대에 옮길 계획이다. 파사무용단은 10월 6일 제작발표회를

갖고 라이브 음악과 함께 작품을 공개하며 작품 제작을 위한 후원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붓다 이야기 첫번째-버려야 할 것들'의 본 공연은 11월 4일 저녁 8시, 5일 오후 4시·저녁 8시에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각각 공연된다. (02)2272-2152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추석에 불교 애니·영화·다큐로 '힐링'

불교TV·불교방송, 추석 특집프로그램 다채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과 BBS 불교방송(사장 이재원, 이하 BBS)이 불교 애니메이션·영화·다큐멘터리 등 다채로운 특집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BTN이 마련한 특집 프로그램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불교 애니메이션 '감진대화상(鑑眞大和尚)'이다. 총 2부작인 '감진대화상'은 당나라 고승 감진 화상을 주인공(律宗)을 일본에 전파하기 위한 구도 여정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전편 모두 한국이 더빙으로 충실히 제작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시청할 수 있다. '감진대화상'은 9월 26일 오후 5시에 1부가, 9월 27일 오후 5시에 2부가 방송되며, 9월 28일 낮 12시30분부터 1, 2부가 연속 재방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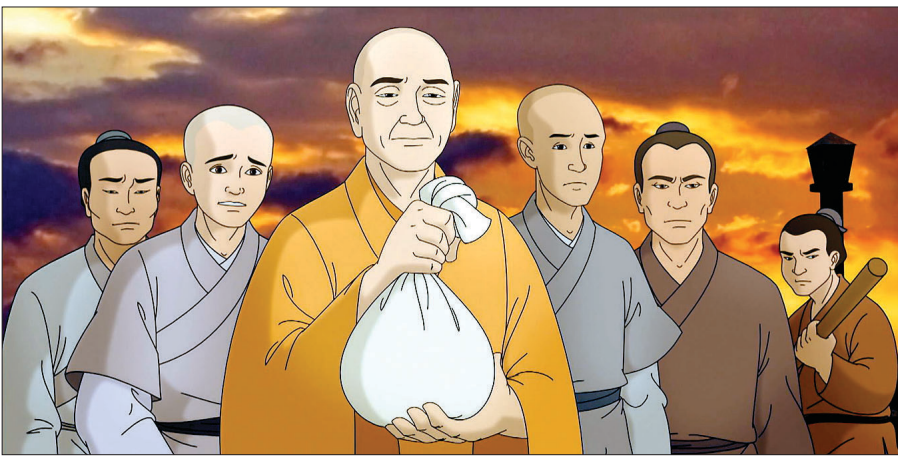
불교만의 의식인 '불복장'을 다룬 2부작 다큐멘터리 '은밀한 의식 불복장(佛腹藏)'도 눈여겨 볼만하다. 9월 28일 오후 2시30분 1부가, 29일 밤 11시 2부가 방영되는 '은밀한 의식 불복장'은 불복장 물품의 의미와 상징은 물론, 복잡한 의식의 절차를 HD영상으로 담아낸 수작이다.

불교계 최초로 노인무료병원을 설립하고 20년 간 복지법인 연꽃마을을 이끌며 복지 한류의 씨앗을 틔워낸故 각현 스님의 일대기를 정리하는 다큐멘터리도 방영된다. 각현 스님의 다큐멘터리는 △9월27일 오전 11시30분 △28일 오전 9시 △29일 오후 5시에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도 '안심정사 법안 스님의 중국 오대산 성지순례(△9월26일 오후 3시 △

BTN 애니 '감진대화상' 韓 최초 방영 BBS '동승' '할' 등 불교 영화 선배

27일 오전7시 △28일 밤 9시)를 비롯해 '상원사 선재원의 행복한 동행(△9월27일 밤 10시 △10월1일 오후 3시 △10월2일 오후 4시), '원력의 빛 세계간화선 무차대회(△9월 26일 오전 9시 △28일 오전 8시) 등도 특집프로그램으로 다뤄진다. BBS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먼저, 라디오는 9월 25일과 29일에 한가위 특집 특별 생방송



BTN불교TV의 추석 특집 애니메이션 '감진대화상'. 한국에서는 최초 방영된다.

'행복한 고향길'을 편성하는 등 추석 연휴 기간 내내 특집으로 청취자를 찾아가는다. BBS 라디오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아침풍경(9:00~10:00) '붓다를 그리다'라는 타이틀로 영산재 이수자 도경 스님에게 불교의례 속에 담긴 영복의 참 의미를 듣는다.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아름다운 초대(11:05~12:00)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26년간 수행한 청진 스님과 소의 계담을 위해 달리는 진오 스님, 108산사 순례의 길 여정을 마친 선록재 스님에게 가르침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BBS TV도 추석을 맞아 한국불교 역사 2천년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추석특집 발원 간절환 바람을 담다(△9월 26일 밤 11시 △27일 오전 9시 30분 △28일 밤 11시) 등 다큐멘터리 3편 특집 편성했다. 또한 동자승의 이야기를 다룬 불교영화 '동승'(9월 26일 저녁 7시), '내 마음의 고향'(9월 27일 오후 1시), 구도자의 깨달음을 영상으로 풀어낸 '할'(9월 28일 오후 1시) 등 불교 영화 3편도 선보인다. 신성민 기자

"편하게 듣고 쉽게 따라 부르는 찬불가 되길"

불자가수 하윤주 '음성공향' 발매

불자가수 하윤주가 새앨범 '음성공향'을 발매했다. 음성으로 향을 피운다는 의미를 가진 신작 앨범에는 찬미의 나라, 진리의 빛 등 15곡의 찬불가를 실었다.

그는 "찬불가로 부처님전에 예불을 올리며 음성공향을 올려왔다. 내 노래가 대중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신심을 돈독하게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기획 취지를 전했다.

그는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가수생활을 접었다가 지난 2011년 14년만에 찬불가음반을 내 사랑을 받았다. 이번 새 음반은 합창단들이 자주 부르는 곡들을 선별해 솔로곡으로 불렀다.

"사찰에서 합창단들이 부르는 노래는 듣기에는 좋지만 일반인들이 따라 부르기 힘든 것이 현실이죠. 누구나 편하게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찬불가를 편곡해 음반으로 담아냈습니다. 찬불가 의식곡을 넘어 설거지 할 때도, 실 때도 쉽게 듣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대중화 되었으면 합니다."

불교방송에서 찬불가 지도강사 1호로 활동해온 하 씨는 찬불가를 부르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 "대중가요를 불



하윤주의 '음성공향' 음반 표지

렀지만 찬불가를 부르고 난 이후부터는 다른 곡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찬불가에 매력을 느꼈죠. 앞으로 찬불가가 유행가처럼 불리워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하윤주는 1987년 '당신은 나의운명'으로 데뷔해 BBS라디오 방송곡 찬불가 지도강사 1호 가수, 1992년 불자가수회 발족(김홍국회장)에 기여했으며, 1993년에 찬불가요 훈몽을 발표했다. 김홍국, 장미화, 조항조, 진미령, 이자연 등과 함께 옴니버스 찬불가요 음반을 내놓기도 했다. 정혜숙 기자

since 1973 **2016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스노우지로 제작!!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54 (송정리 364-2) TEL. (051)515-888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 농협: 010-2094-2991-09 ◆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p>2015년 6월 달력</p>	<p>2015년 7월 달력</p>	<p>2015년 8월 달력</p>	<p>2015년 9월 달력</p>
--------------------	--------------------	--------------------	--------------------

12절:상호인쇄

12절(벽걸이형)달력 100부 이상 @ **1000** 원

- 삼천부이상 @800원
- 규격: 25.8cm × 26.5cm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정가 1800원
- 규격: 30cm × 63cm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800원
- 규격: 9.5cm × 13.4cm
- 매수:18장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정가 1800원
- 규격: 26cm × 19cm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원
- 규격: 8.9cm × 9.5cm
- 매수:16장